

적극적인 해외진출과 끊임없는 투자

황구연 / 동일알루미늄(주) 대표이사

제 44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1억불수출의 탑을 수상한 동일알루미늄(주)(대표이사 황구연)은 납입자본금 260억으로 1989년 4월 설립된 알루미늄박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동일은 회사 설립 이래 끊임 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얻은 기술력을 원동력으로 최고 품질의 알루미늄 제품을 개발하는데 노력해 왔다.

국내 시장을 넘어 세계시장에서 당당하게 그 이름을 높여, 수출역군으로서의 기업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이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출의 탑을 수상하게 됐다.

동일은 각종 연포장재, 가정용 및 산업용 냉, 난방 등의 공조시설용과 라디에이터 등의 열교환용 FIN재, 전기, 전자, 전선용재, 건축용재, 담배 포갑지용 접합지, 가정용품 알루미늄 박 및 에어컨용 열교환기를 완전자동화 시스템으로 효율적인 제품생산과 최고 품질의 제품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무한경쟁시대에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적



극적인 해외진출과 끊임없는 투자를 위해 2004년 8월13일에는 INDIA에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해외시장확대의 발판기지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으며, 경남 김해에 동일알루미늄 제 2공장을 설립하여 생산량 확대에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또한, 기존 설비로는 끊임없이 경쟁하는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수시로 압연공장 설비의 자동화 및 첨단 시스템으로 설비 교체 및 열교환기 라인 증설로 다른 동종 기업보다 보다 나은 제품으로 고객만족을 통한 재구매 창출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동일알루미늄(주)은 끊임 없는 연구개발과 고품질 제품의 생산, 적극적인 투자와 해외진출을 통해, 성장의 걸음에 가속화를 붙여 초일류 기업으로서 당당히 성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황구연 대표이사는 유공자 포상부문에서 철탑산업훈장을 수여 받아 공로를 인정받았다. ☐

최고 기술력과 연구개발 통해 업계 선도

한 남 희 / 삼아알미늄(주) 대표이사

제 44회 무역의 날 시상식에서 삼아알미늄(주)(대표이사 한 남희)이 5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삼아알미늄(주)은 1969년 창사 이래 최고의 기술력과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알루미늄 박과 그 가공업계를 선도해 왔으며 현재 일반포장재용, 콘텐서용, 음극박재용 박 및 산업용인 자동차용, 에어컨용 전선용 박의 압연 제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품 및 서비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 깨끗한 환경을 추구하며 환경보호에 기여한다는 신념 아래 세계 최고의 알루미늄박 메이커를 지향하고 있다.


2004년 6월 포승국가 공업단지에 3만여평 규모의 부지에 알루미늄 박 압연과 가공이 가능한 공장을 준공한 삼아는 질과 양적인면에서 국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공장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국제적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 주력하고 있다.

일본 최고의 알루미늄 박 제조업체이기도 한 東洋알미늄(주)과 합작투자 업체인 삼아알미늄



(주)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과 개발 역량에 양사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 쌓인 기술적 조연을 덧붙여 세계 수준의 제품을 생산해 오고 있다.

지난해 47255천불을 수출했던 것에서 당해 연도 54456천불을 수출하며 15% 수출 신장을 이룬 삼아알미늄은 알루미늄박과 가공접착박을 수출하며 업계에서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한편 삼아는 고객의 요구와 사회적 조건 및 표준에 일치하는 최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며, 품질경영시스템을 KS A 9001:2001, ISO9001:2000에 부합시키고, 그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제품의 안정성과 품질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도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전 삼아인들은 삼아인의 5S운동 생활화해 현장의 기계설비, 원부재료, 작업도구, 완제품과 사무실의 서류, 비품 그리고 주변환경을 전사원 스스로가 정리, 정돈, 청소, 청결히 하고 제반 질서를 지키는 등 교육 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친환경 기초 필름 부품소재 전문기업

김상근 / (주)상보 대표이사

3 천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주)상보(대표이사 김상근)

는 납입자본금 37억으로 1977년 7월에 설립된 부품, 소재 전문기업으로, 과거 오디오 및 비디오 오버랩 필름의 선두주자였으며, 현재는 LCD에 필요한 BLU 필름을 전문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업체로서 유수의 기업과 긴밀한 협조관계에 있는 전도유망한 중소기업이다. 특히 상보는 회사 창립 초기부터 연구실을 자체 운영하여 새로운 제품의 개발에 힘써왔으며, 또한 신기술의 접목으로 첨단 제품을 개발했다. 현재의 기술에만 안주하지 않고 미래 지향적인 제품을 개발하고자, 신소재의 접목, 가공 기술의 극대화, Coating 설비의 첨단화를 목표로 새로운 제품에 대한 개발에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차세대 IT 산업을 선점하고자, 향후 개발제품에 대한 대한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빠른 대처를 통한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Total R&D System 을 구축하였고, 보다 나아가서 생산, 영업, R&D가 하나가 되는 고객만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부설연구소 포함 약 20명의 핵심 기술연구진과 생산라인 포함 230명이 재직 중에 있으며 올해, 코스닥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현재, 매출의 60% 이상을 해외수출로 올리고 있으며, 2004년 이후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2007년 6월, 대만, 중국 등 아시아 시장을 선두로 남미와 미주, EU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반사 sheet, 프리즘 보호 sheet, solar control film 등이 있으며 현재, 프리즘 보호 sheet에서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더 큰 매출실적이 예상된다. 또한, 부품, 소재 전문기업으로 ISO 9001 환경인증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산업은행에서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어, 글로벌스타로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다. 1997년 제34회 무역의 날 500만불탑 수상을 시작으로, 2000년 제37회 무역의 날 1000만불탑을 수상했으며 그동안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인 대상수상, 중소기업대상 수상 등 업계에서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

국내 패키징산업 선진포장문화 확산



김 영 호

한국포장기술인협회의 회장
한국포장기술연구소 소장

산 업자원부가 주최한 우수 패키징 기술 및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에서는 김영호 한국포장기술연구소 소장이자 한국포장기술인협회의 회장이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1970년 제1회 아시아 포장기술자 양성과정 수료하고 1981년 국내 최초로 디자인 및 포장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김영호 한국포장기술연구소 소장은 국내 제1호 포장기술사로 유명하다.

국내 포장산업의 발전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김 소장은 육군기술연구소 포장연구실에서 군원이관에 따른 군수포장에 대한 연구, 규격제정 및 시험으로 군수포장문제 해결하는 등 군수포장의 선구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사)한국포장기술협회, (재)한국수출포장센터, (재)한국디자인포장센터를 거치면서 수출포장에 대한 집중 연구개발과 수출품 포장규격을 제정해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포장” 외길을 걸어 오고 있다.

1960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한국디자인포장센터의 포장개발부장을 역임한 김영호 소장은 당시 미국 및 일본과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선진 포장기술을 국내에 소개, 현대적 포장기술을 도입하는데도 지대한 공헌을 했다.

1972년에는 국내 포장컨설팅의 산실인 한국포장기술연구소를 설립, 포장산업 발전의 초석

을 마련했다. 수많은 업체에 선진화된 포장기술을 전수하면서 국내 포장기술 수준을 대폭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신규 제품(상품)에 대한 제품설명회 주관, 해외 포장관련 전시회 출품주선, 해외 포장관련 전시회 시찰단 구성 참가 등의 업무를 활발하게 진행해 나가고 있다. 김 소장은 국내 근대포장 태동기부터 성숙기에 이르기까지 절대적인 공헌을 한데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그는 포장관련 서적이 전무한 국내 포장산업의 현실에서 탈피하고자 그동안 ‘공업포장의 이론과 실제’, ‘후렉소 인쇄기술입문’, ‘포장산업편람’ 등을 저술해 현장중심의 포장기술을 이론적으로 성립하였다. 90년대 말부터는 국내 포장기술인들의 모임인 한국포장기술인협회의 회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 포장기술인들의 활발한 교류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환경, 물류,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포장 외연을 확대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지난 40여년 이상 업계 일인자로 국내 포장산업 대변인 역할을 수행해 온 그의 행보가 여전히 기대되고 있는 것은 포장에 대한 그의 열정 때문일 것이다. 국내 포장역사의 산증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김영호 한국포장기술연구소 소장의 또 다른 도전을 기대해 본다. ☐

무용제 프로세스 오프셋 잉크 '솔프리' 개발



신 현
대한잉크(주)대표이사

미 래패키징신기술정부포상 우수시스템부문에 대한잉크(주)(대표이사 신현)가 '무용제 프로세스 오프셋잉크'로 산업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포장재, 인쇄, 디자인 등 기본적인 부문을 비롯하여 다양한 산업군이 포함되어 있는 패키징 신기술 시상에서 대한잉크가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이디어와 품질이 더 좋은 여러 기술보다 당사의 수상 제품이 양호한 평가를 받은 것은 무엇보다 환경을 중시한 개발취지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잉크는 1945년 창업 이래 인쇄 잉크 전문 제조회사로 성장해 왔다. 국내 최초로 지폐용, 교과서용 잉크를 생산했으며 1960년대부터 수출을 시작하여 국내 인쇄잉크 산업을 주도한 회사이다. 국내 최대의 인쇄잉크 전문 기술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개발하여 기술선진화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경영혁신을 실시하여 원가절감을 통한 고객만족과 환경경영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대한잉크가 야심차게 개발한 무용제 프로세스 오프셋잉크인 솔프리는 제품 포장재, 도서 등의 인쇄에 사용되는 오프셋 잉크로서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은 물론 유기 용제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친환경 제품이다.

솔프리는 프로세스인쇄의 기본인 4색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유기용제 함량 0.07% 미만으로 사실상 완전 무용제 제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제품에 비하여 인쇄작업성, 색상 재현이 우수하며 가격도 대등하여 경쟁력이 탁월한 제품으로 국내 시장은 물론 세계 시장도 적극적으로 공략하여 향후 수출실적이 향상되는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인쇄 선진국에서도 무용제 잉크를 개발했다고 발표한 적은 있으나 일부 전시회에서 발표된 제품들은 실제 양산과정을 거쳐 인쇄산업에 성공적으로 런칭한 사례는 아직 보고된 것이 없다. 따라서 대한잉크가 개발하여 상품화에 성공한 솔프리는 국내 포장산업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신현 사장은 “전세계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현재 환경보호에 관심을 갖지 않는 나라는 없다”며 “이제는 인쇄잉크의 기본품질에 환경품질도 포함되어야 하며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우리나라가 앞장서 선도적인 지위를 선점했다는 것은 인쇄, 포장 산업에 있는 우리 모두가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으로 대한잉크는 환경경영정책을 수립하고 환경친화적인 제품개발 로드맵을 작성,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인쇄잉크의 발전방향인 디지털 인쇄 분야와 정밀화학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구축할 예정이다. ☐

윈도우를 갖는 분말세제 용기 최초 개발



김응용
애경산업(주) 포장개발팀 대리

미 래패키징신기술정부포상 우수제품부문에 애경산업(주)(대표이사 안용찬)이 '윈도우를 갖는 분말세제용기'로 산업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윈도우를 갖는 분말세제용기를 개발한 애경산업 포장개발팀 김응용 대리는 "저를 포함하여 회사와 포장개발팀 모두에게 큰 영광이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분말/액체 세탁세제, 가정용품, 수출용 제품의 포장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김 대리는 드럼세탁기용 분말세제용기에 윈도우를 설치하여, 기존의 패키지 디자인을 완전히 바꿔보자는 같은 부서인 김남수 팀장의 제안으로 제품 개발을 시도하게 됐다.

김 대리는 "분말세제를 내용물 측면에서는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이끌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패키지 측면에서는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였다"며 "기술적, 원가측면 등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기술을 구체화시켜서 정식으로 사내에 제안하게 되었고, 마침내 스파크 드럼용 세제 리뉴얼에 용기를 적용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용기는 먼저 시각적 효과로 투명창이 있는 외관으로 용기만 봐도 어떤 제품인지 한 눈에 알 수 있고, 디자인 차별화로 매출증대에 용기가 직접 기여를 했다. 또한, 사용편의성 측면에

서, 탈부착형 스푼을 적용하여 분말세제가 손에 묻는 것을 방지하였고 캡을 열지 않고도 사용량을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자동포장 파우치 내장으로 내용물 고형화를 방지한 점이 큰 특징이다. 용기의 원리로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용기 안쪽에서 조립되는 이중 언더컷 타입의 윈도우로 분말 하중 및 충격에 의한 윈도우 이탈을 방지하였고 강한 체결력과 조립생산성을 동시에 가지기 위하여, 용기와 윈도우의 수축률 차이를 이용한 조립방식을 채택하면서 용기 사출직후 윈도우를 인라인으로 설치하였다. 김 대리는 "세탁세제 신 용기를 접목하면서 별다른 판촉행사 없이도 매출이 증가하는 등 소비자 반응이 좋은 것으로 보아 앞으로 패키지 차별화를 이용한 수출 증가도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번 신 용기는 제품의 부가가치를 패키지 차별화로 부각시킴으로써 향후 중국의 저가공세에 대응할 수 있는 차별화 개발의 대표적인 사례로써 세제 시장에서 혁신적인 디자인이나 기능을 갖는 차별화된 세제용기의 개발을 가속화시키며 세계 시장에 제품 또는 용기를 수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췄다. 현재 신규 분말세제 용기를 개발 중인 김대리는 앞으로 매년 2개 이상의 특허/실용신안을 출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